

“약사여래불의 마음으로 환우 돌봐요”

10주년 맞은 부산 백병원 법우회 신년법회 봉행

부산백병원 법우회(회장 조미숙)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1월 19일 부산백병원 입재관 강당에서 열린 백병원 법우회 신년법회 현장을 찾았다. 이날 법회에는 간호사, 의사, 영상의사, 환자, 환우 가족 등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법우회 법사 목종 스님(대광명사 주지)은 법문을 통해 “의료인이라는 직업은 복을 짓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환우들을 위해 일하며, 행복을 나누고자하는 마음을 갖고 공덕을 실천해 복을 많이 짓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법우회 이대수 씨는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족 같다”며 “방문할 때마다 어르신들의 안색을 살피고 건강을 확인하며 위로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백병원법우회는 직장 동료들 넘어 도반으로 거듭나고 있다. 매년 템플스테이와 성지 순례는 물론 100일 정진 기도도 진행하고 있다. 100일 정진 기도는 연말 대입 시기에 맞춰 진행한다. 고3 자녀를 둔 법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 간절함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부산백병원 법우회가 1월 19일 입재관에서 신년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사려라는 평을 받고 있다. 법우회 창립 멤버인 송명지 간호 부장은 “지금의 법우회가 있기까지는 10년간 한결 같이 도와준 법사 목종 스님의 도움이 컸다”고 전했다. 목종 스님은 10년 간 매달 정기법문을 위해 부산백병원을 찾고 있다. 아울러 목종 스님은 환우들을 위한 활동도 법우회와 함께 펼치고 있다. 부산백병원의 뇌사판정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뇌사판정을 받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아울러 목종 스님은 환우들을 위한 활동도 법우회와 함께 펼치고 있다. 부산백병원의 뇌사판정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뇌사판정을 받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앞으로 부산백병원 법우회는 해운대백병원 법우회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송명지 간호 부장은 “해운대백병원과 부산백병원 법우회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못돼요. 올해는 성지 순례 및 템플스테이 등도 함께해 결속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계획을 밝혔다.

하성미 기자

매달 정기법회 통해 자비심 길러 지역민에게 나눔 실천도 적극적 해운대백병원 법당 전립도 눈길

법우회 간호사 장이성(50)씨는 “대학 시절 기독교 재단의 학교를 다녔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독교 활동에 참가하며 불편한 마음이 일었다. 지금은 직장에서 불교 도반을 만나 행복하다. 도반들과 함께 봉족일 날 환우들에게 떡, 경전, 연등을 나눠 주는데, 환우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부산백병원 법우회는 기독교 재단 병원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불교 법우회 회원이 100명이 넘어 직장인 법우회의 모범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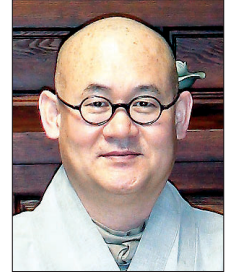
간호사 김성경(50)씨는 “법우회에서 법문을 듣고 환우들을 만나면 자비심이 생겨 그들을 세심히 살피고자하는 마음이 든다”며 “이를 통해 내가 더욱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법우회는 봉사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매달 셋째 주 금요일 대광명사 봉사팀 사무량심 회원들과 함께 독거노인들을 위한 물품 나눔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독거노인들의 건강을 체크하며 재능보시를 통해 자비행도 실천하

안동 보경사, 중론(中論) 집중 강좌

2월 7일부터 3차에 나누어 진행... 하루 9시간 강의

매년마다 경전 집중 강의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는 안동 보경사(주지 오경)가 올해 겨울 수련회 강의 경전으로 ‘중론’을 선택했다.



중론 본문 중 100개의 계승이 먼저 다뤄질 계획이다.

오경 스님은 “초기불교와 부파불교를 섭렵, 융화하여 발전시킨 용수 보살의 중관사상은 이후의 대승불교인 유식사상, 여래장사상, 밀교, 선사상을 창출한 불교의 중심사상”이라며 “불교의 모든 사상은 중관사상으로 관통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보경사 주지 오경 스님은 부산과 안동의 정해학당 경전 강의를 비롯해 서울의 정해사, 대전주도회에서 금강경을 강의 중이다. 철학 전공자다운 분석적, 논리적, 철학적 강의로 경전 강의를 이끌고 있다. (054)842-4080 하성미 기자

오경 스님(사진)은 “대승불교의 기초이면서 불교 가르침의 핵심인 ‘연기(緣起) 공(空)’을 드러낸 중론을 대부분의 불자들은 모른다”며 “그러다 보니 많은 불자들이 기초 없는 건물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듯 불안하다”고 했다. 이번 중론 강의는 불교라는 집을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대대적인 기초 공사라고 스님은 설명했다.

“중론집중강좌 수련회”는 총 3차례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2월 7일~9일, 2차 2월 27일~3월 1일로 진행되며 정원은 15명이다. 강의는 예불과 참선, 공양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 이상 중론이 설해진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중론에 대한 개론과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장학금 전달식

1월 20일 울산시에 300만원 전달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해안)은 1월 20일 울산시청을 방문해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울산지원장 해안 스님과 천주현 울산지원 신도회장 등 신도 임원이 참석해 구합 22일 동지팍죽 판매 수익금 300만원을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김기현 울산시장에게 전했다. 장학금은 울산 호계고등학교 학생 1명에 전달됐다.

사진 왼쪽부터 윤옥희 울산지원 부회장, 김상만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울산지원장 해안 스님, 김기현 울산시장, 천주현 울산지원 신도회장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2010년부터 매년 동지 팍죽을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인근 중·고등학교에 다

니는 저소득층 모범 학생들에게 전달해오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 성도절 기념법회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회장 선지)가 1월 20일 오후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성도절 기념대법회 우리도 부처님같이’를 봉행했다.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는 1982년부터 불교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성도절 행사를 연합기념대법회 형식으로 진행해왔다. 이날 행사 역시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여했으며 연합장단과 사물놀이 공연은 물론 사찰에서 준비한 육법공양 등이 이어졌다.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 회장 선지 스님은 “부처님의 정각은 어두운 사바세계에 지혜의 등불을 밝힌 것”이라면서 “우리는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지혜를 발현하여 보시와 자비를 실천해 가야 한다”고 법문했다. 이날 법회에 자비나눔실천행의 모범이 된 11명의 불자에게 표창장과 공로패가 수여됐다. 또한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했고 불우이웃 성금마련 행사도 가졌다. 손문철 대구지서장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는 1월 20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성도절 기념대법회’를 열었다.

의성 고운사 장학금 전달식 개최

1월 16일 화엄템플관사... 장학금 수혜자 위한 템플스테이도

16교구본사 의성 고운사가 1월 16일 화엄템플관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중고등학생 41명에게 총 123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주지 호성 스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타의 모범이 되는 41명 학생들에게 해마다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 종교를 떠나 지역의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으로 앞으로 이들이

사회에 나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고운사는 장학금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화엄템플관에서 1박 2일 동안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템플스테이는 ‘나를 깨우는 108배’ ‘견기명상(천년술길걷기)’ ‘고운사 둘러보기’ 등으로 이루어졌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의성 고운사는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템플스테이도 진행했다.

부산 마하보리회, 자명 스님 초청 법회

1월 17일 부산불교신도회관서



자명 스님 특별법문 및 즉문즉설 법회 장면

부산 마하보리회(회장 손정현)는 1월 17일 부산불교신도회관 법계정사에서 서울 마하보리사 자명 스님 초청 특별법문 및 즉문즉설 법회를 봉행했다. ‘선문답의 세계와 깨달음’이란 주제로 법문을 자명 스님은 “참선이란 나의 존재를 규명하고 생활과 인간관계 속에서 법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기법에 대해서는 “관계를 깨닫는 것이며 관계가 내 마음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무아임을 아는 것”이라고 법문했다. 즉문즉설 시간에는 참가한 불자들이 고성 열불법, 불교를 현실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 사회 부조리에 대해 취해야 할

불자의 태도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 질문했다. 자명 스님은 <선문답의 세계와 깨달음> 저자로 서울대 입학, 1979년 해인사로 출가했다. 이어 서울대, 이화여자 대학교 불교학 석사 지도법사로 활동하며 청년 포교를 위해 주력했다. 하성미 기자

설날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자연향을 원료로하여 제작한 천연향 초

숙향초 세트 · 밀납향초 세트

밀납향초 및 양숙향초는 그윽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숙향초 선물세트 6p

약숙향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잠자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격 : 30,000원
· 크기 : 높이 18cm X 지름 6cm

밀납초 선물세트 6p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 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격 : 30,000원
· 크기 : 높이 18cm X 지름 6cm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틀에박힌 성지순례 이젠 그만!

1석 3조

미얀마 · 스리랑카 · 캄보디아 · 라오스 · 네팔 (1회차)
태국 · 베트남 · 인도 · 부탄 · 인도네시아 (2회차)

부처님의 가피력을 특별한 인연으로 만들어 희망의 씨앗을 뿌려 드립니다.

크스님 사찰 방문 · 고아원봉사 · 오지학교 교육지원사업 · 학교 신축 보수공사 · 불교대학 방문봉사 및 식수정수시설지원 · 각 종단 최고지도자 종교성량평가나 종단장 및 각 나라 최고지도자와 대담 친견하여 우리나라 불교문화 및 방문국 불교문화를 교류하여 왕래할 수 있도록 MOU체결 및 중단 사찰 스님 제정에 맞추어 맞춤형봉사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드립니다.

세계불교연합법왕청 사무국
문의전화 1644-9079 상담자 직통 010-8288-1833 일광봉사
후원 미얀마종교성 | 스리랑카종교성 | 캄보디아승왕청 | 라오스종교부
태국종교성 | 대만불교원각조계종 | 사)한국다문화가족지원연대(여성가족부)
주)어안성조 | 주)씨티투어 | 국제불교문화교류협회